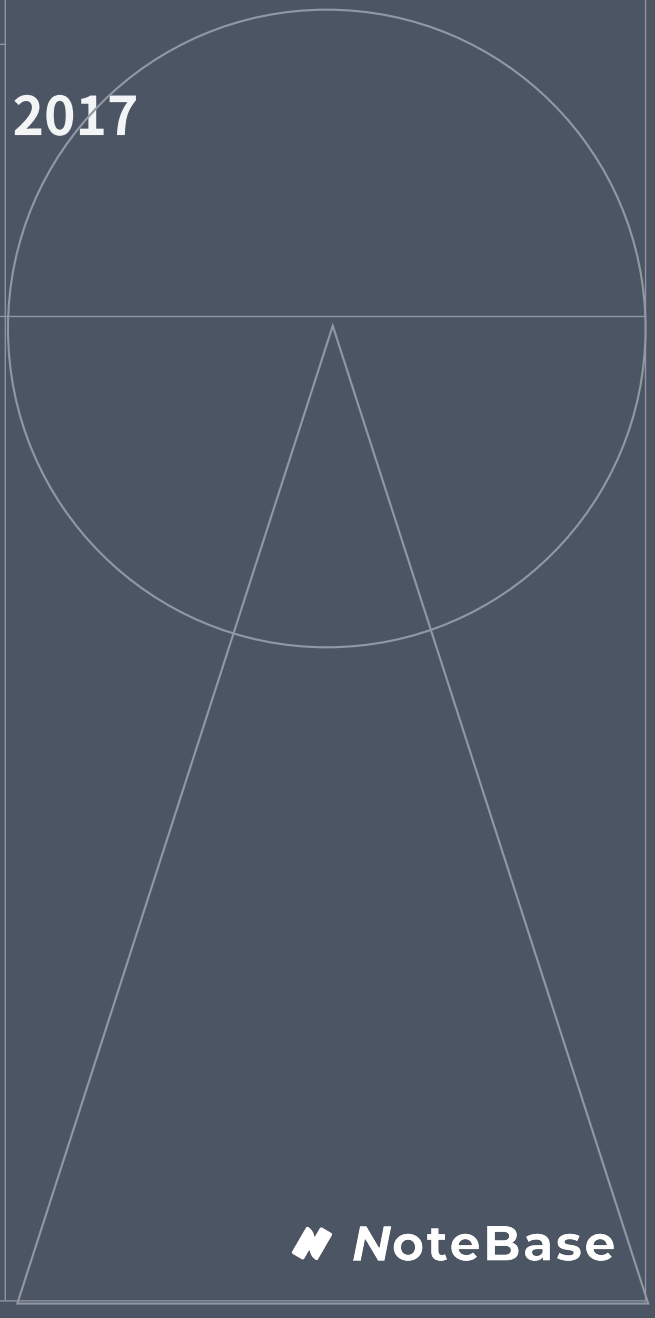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7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7

문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선릉[선능] – Seonneung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학여울'은 '여울' 앞에 **ㄴ이 첨가**된 뒤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항녀울]로 발음된다. 이 음운 변화를 반영한 로마자 표기가 **Hangnyeoul**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선릉'은 ㄴ이 뒤의 ㄹ에 동화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설릉]으로 발음된다. 로마자 표기에서도 이 변화를 반영하고 ㄹㄹ을 ll로 적으므로, [선능]과 Seonneung을 각각 [설릉]과 Seolleung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학여울'은 '학'과 '여울'이 결합한 말이다. '여울' 앞에 ㄴ이 첨가되어 [학녀울]이 되고,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ㄴ에 동화되어 ㅇ으로 바뀌므로 [항녀울]로 발음된다. 로마자 표기는 **ㄴ 첨가와 비음화를 모두 반영**하여 Hangnyeoul로 적는다.

③ X: '낙동강'은 받침 ㄱ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낙똥강]으로 발음되므로 제시된 발음은 맞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에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 받침 ㄱ은 k로, '동'의 ㄷ은 dd가 아닌 d로 적으므로 Nakddonggang을 Nakdonggang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집현전'은 ㅂ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므로 [지편전]이라는 발음은 맞다. 다만 로마자 표기에서는 **체언의 ㄱ·ㄷ·ㅂ 뒤에 오는 ㅎ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집현전'은 발음대로 Jipyeonjeon으로 적지 않고, ㅂ은 p로, ㅎ은 h로 밝혀 Jiphyeonjeon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뒤풀이'는 뒷말이 거센소리 'ㅍ'으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맥줏집'은 한자어 '맥주'와 고유어 '집'이 결합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을 만큼 살이 쪘다는 문맥이므로 '살이 찌다'라는 뜻의 '붇다'를 써야 한다. '붇다'의 어간 '붇-'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붙을 때는 받침 'ㄷ'이 유지되므로 **'부는'을 '붇는'으로 고친다**.

② X: '넉넉하지'를 줄이면 **'넉넉지'**가 된다. '하' 앞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넉넉하지'는 '하' 앞의 받침이 [ㄱ]이므로 'ㅎ'과 'ㅈ'을 합쳐 '치'로 적지 않는다.

③ O: '뒤풀이'는 '뒤'와 '풀이'가 결합한 말로, 뒷말이 **거센소리 'ㅍ'으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맥줏집'은 모음으로 끝나는 한자어 '맥주'와 고유어 '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뒷말 '집'의 첫소리가 **된소리 [ㅉ]으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④ X: 이 책이 중세 국어를 연구하는 자료라는 자격으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므로 **'자료로서'**로 고친다. '로서'는 지위·신분·자격을 나타내고, '로써'는 재료·수단·도구 등을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는 자료를 수단으로 삼아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③ 'ㆍ'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④ 'ㅸ'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ㅂ'으로 변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마련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각 단어를 띄어 쓰는 원칙**을 명문화하여 띄어쓰기를 규범화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 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띄어쓰기 원칙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선지의 설명이 성립한다.

② X: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6세기 후반의 언간에서 이른 용례가 확인되며, **17세기 이후 근대 국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이·ㅣ'로 나타나거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③ X: 아래아 'ㆍ'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쓰인 모음자이며, **17세기 이후 문헌에도 나타난다**. 중앙어에서 고유한 음가를 잃은 뒤에도 표기는 이어졌으므로, 소리의 소멸을 곧바로 문헌에서의 글자 소멸로 볼 수 없다.

④ X: 순경음 비읍 'ㅸ'은 15세기 중엽 이후 모음 앞에서 **반모음 [w]**로 변하였다. 이 반모음이 뒤의 모음과 결합하면서 '와·워'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선지에 제시된 자음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신라의 진평왕 때 눌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결의를 밝혔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괄식 문단은 **중심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한다. ㉢은 선비 정신의 강인성이 의리 정신에서 드러난다는 중심 내용이며, 눌최와 죽죽의 이야기는 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올바른 순서

㉢ → ㉠ → ㉡ → ㉣

㉢: 선비 정신의 강인성이 의리 정신으로 표현된다는 **문단 전체의 중심 내용**을 제시한다. 눌최와 죽죽이 위기 속에서도 절개를 지킨 이야기를 포괄하므로 두괄식 문단의 맨 앞에 놓는다.

㉠: 눌최가 백제의 공격을 받는 상황과 병졸들에게 한 말을 제시하여 중심 내용을 구체화한다. 추위에도 잎이 지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에 빗대어,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는 절개를 드러내는 첫 사례이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에서 소개한 눌최가 처한 상황을 가리킨다. 원군이 없는 위기를 절개를 다할 때로 받아들이는 말이며, **㉠에서 시작한 인용이 이어진다**. 뒤의 '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까지 연결되어 눌최의 사례를 마무리하므로 ㉠ 다음에 놓는다.

㉣: 죽죽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두 번째 사례이다. '죽죽도'의 **'도'는 앞선 눌최의 사례에 같은 성격의 사례를 덧붙임**을 나타내므로, 눌최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놓는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별은 '추억', '사랑', '동경', '어머니'와 연결되어 화자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내적 세계**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된 부분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한 표현이 없다. 화자는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추억과 정서를 떠올리고**, '어머니, 어머니'라고 거듭 부르며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X: 제시된 부분에는 현실과의 갈등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과 별마다 연결되는 정서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O: 화자는 '별 하나에'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별을 추억·사랑·쓸쓸함·동경·시·어머니와 연결한다. 따라서 별은 단순한 천체를 넘어, 화자가 마음에 간직하고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④ X: 별에 연결된 것은 추억·사랑·동경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의 정서이다. 별은 **현실 상황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화자의 소중한 기억과 그리움, 지향을 담고 있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살다–죽다'는 생사의 의미에서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이 성립하는 **상보 반의 관계**이다. 두 상태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는 점진 반의 관계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반의 관계의 성격은 두 말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지, 한쪽을 부정하면 반드시 다른 쪽이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① 살다–죽다: 생명체의 생사를 기준으로 하면 살아 있지 않은 것은 죽은 것이고, 죽지 않은 것은 살아 있는 것이다. 두 상태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는 상보 반의 관계**이다.

② 높다–낮다: 높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진 반의 관계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 높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지 않다고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

③ 늙다–젊다: 나이 든 정도를 나타내는 점진 반의 관계이다. 늙었다고도 젊다고도 하기 어려운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늙지 않았다고 반드시 젊은 것은 아니다**.

④ 뜨겁다–차갑다: 온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진 반의 관계이다. 두 상태 사이에 **미지근한 상태**가 있으므로, 뜨겁지 않다고 반드시 차가운 것은 아니다.

①은 상보 반의 관계이고, ②·③·④는 점진 반의 관계이므로 ①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르다.

NoteBase

문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기>의 단어들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건어물'도 '어물' 앞에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건-'이 붙어 만들어졌다.

공통 해설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 한다.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이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다. 접두사는 어근 앞에,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다.

<보기>에서 '개살구'는 '개- + 살구', '헛웃음'은 '헛- + 웃음'으로 분석되며, 각각 접두사 '개-', '헛-'이 붙어 있다. '낚시질'은 '낚시 + -질', '지우개'는 '지우- + -개'로 분석되며, 각각 접미사 '-질', '-개'가 붙어 있다. 접사가 붙는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파생어라는 형성 원리를 공유한다.

'건어물(乾魚物)'은 접두사 '건-'과 어근 '어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여기서 '건-'은 **'마른' 또는 '말린'**이라는 뜻을 더하므로, <보기>와 같은 파생의 원리로 형성되었다.

반면 '금지곡(禁止曲)'은 '금지 + 곡', '한자음(漢字音)'은 '한자 + 음', '핵폭발(核爆發)'은 '핵 + 폭발'로 분석된다. 이때의 구성 요소들은 접사가 아니라 명사인 어근이므로, 세 단어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① 님금

② 

③ 

④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ㅱ(순경음 비읍)은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쓴** 글자로, 한글 창제 당시의 **초성 17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 해설

한글 창제 당시의 초성 17자는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ㆁ · ㆆ · ㅿ이다. 오늘날 쓰는 기본 자음 14자에 **ㆁ(옛이응) · ㆆ(여린히읗) · ㅿ(반치음)**을 더한 구성이다.

① '님금'의 ㄴ · ㅁ · ㄱ은 이 목록에 속한다. ②에 쓰인 삼각형 모양의 글자는 ㅿ이고, ③에 쓰인 원 위에 짧은 세로획이 있는 글자는 ㆁ이다. 이 두 옛글자도 초성 17자에 포함된다.

마지막 보기에는 ㅂ 아래에 ㅇ을 붙인 모양의 **ㅱ(순경음 비읍)**이 쓰였다. 순음 글자 아래에 ㅇ을 이어 쓰는 방법을 '연서'라고 하며, ㅱ은 이렇게 만들어 쓰는 글자이므로 창제 당시의 초성 17자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SNS에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식 맛이 좋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인기나 화제성 자체가 맛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통 해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나 지지를 주장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근거로 삼는** 오류이다. 예문은 SNS에서 식당이 인기를 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음식이 맛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화제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음식 맛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도 여러 사람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맛이 괜찮은가 봐'라고 판단한다. **대중의 관심을 음식 맛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예문과 같은 오류이다.

다른 후보는 판단의 근거가 다르다. ②는 맛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점, ③은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말했다는 점, ④는 자신이 그 식당에 가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들은 각각 부정적 평가의 부재, 특정 유명인의 평가, 개인의 바람을 근거로 삼으므로, 다수의 관심이나 인기에 기대는 예문의 방식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서술자는 조선의 여성과 학교를 깎아내리면서 일본식으로 살면 돈도 잘 모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편견은 그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하며, 독자가 **맹목적인 일본 추종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비판하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서술자는 내지인, 곧 일본인을 비판하지 않는다. 일본 여성의 외모·성품·지식을 칭찬하고 일본식 생활을 따르려 한다. 오히려 **조선의 여성과 학교를 비하**하면서 일본인처럼 살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운다.

② X: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로서 자신의 이상과 계획을 말한다. 주인이 앞으로 자신에게 장사를 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목에서도 제한된 인식이 드러난다. 인물과 사건을 모두 아는 전지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1인칭 서술자**이다.

③ X: 주인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제시되지만, 다른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추리하여 드러내는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서술자가 직접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이상과 계획,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평가도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서술자 자신의 편견을 보여 준다.

④ O: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는 자신의 인식이나 가치 판단에 한계가 있어 독자가 그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서술자이다. 이 글의 '나'는 조선 여성을 일률적으로 깎아내리고, 이름·옷·음식·언어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면 돈도 잘 모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일방적인 판단을 당연한 듯 말하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생각에 동의하기보다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과 물질적 성공에 치우친 태도**를 비판하게 된다.

NoteBase

문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① 헛수고
② 분주함
③ 성급함
④ 뒷고생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두 속담은 모두 **애써도 보람이나 성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도랑을 치느라 부산하게 움직여도 소용이 없고, 까마귀가 목욕해도 검은 빛깔이 그대로라는 데서 '헛수고'와 연결된다.

공통 해설

'헛수고'는 **애를 쓰고도 보람이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수고**이다. 두 속담은 수고를 들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수고가 보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공유한다.

㉠ '가물에 도랑 친다'는 가뭄이 한창인데 도랑을 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빗대어, 보람 없는 일에 애쓰는 것을 뜻한다.

㉡ '까마귀 미역 감듯'은 까마귀가 목욕해도 여전히 검다는 데서, **일을 해도 그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뜻한다.

㉠에 부산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주함'만으로는 ㉡까지 함께 설명할 수 없다. 두 속담의 공통점은 행동이 급하거나 고생하는 시기에 있지 않고, 수고한 만큼 보람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두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헛수고'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陶冶 - 도치

② 改悛 - 개전

③ 殺到 - 살도

④ 汨沒 - 일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改'는 '개', '悛'는 **'전'**으로 읽으므로 '改悛'의 독음은 '개전'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陶'는 '질그릇 도', '冶'는 '쇠 불릴 야'이므로 '陶冶'는 **'도야'**로 읽는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른다는 뜻이다. '도치'는 '冶'의 음을 잘못 읽은 것이다.

② O: '改'는 '고칠 개', '悛'는 **'고칠 전'**이므로 '改悛'은 '개전'으로 읽는다.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친다는 뜻으로,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③ X: '殺'은 '살' 외에 '쇄'라는 음도 있으며, '殺到'에서는 **'쇄'**로 읽는다. '到'는 '다다를 도'이므로 올바른 독음은 '쇄도'이다. 전화나 주문 등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거나 사람들이 세차게 몰려드는 것을 뜻한다.

④ X: '汨'은 '골', '沒'은 '몰'로 읽으므로 '汨沒'의 독음은 **'골몰'**이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쏟는다는 뜻이다. '일몰'로 읽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보기>
㉠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둣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쑥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래는 ㉣ 일 밖에 없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년'은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릴 때 **'30년'처럼 붙여 쓸 수 있다**. '동안'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30년 동안'으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창 밖'은 **'창밖'**으로 고친다. '창문의 밖'을 뜻하는 '창밖'은 한 단어인 합성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② X: ㉡의 '우단천'은 **'우단 천'**으로 고친다. '우단'은 벨벳을 이르는 명사이고, '천'도 별개의 명사이다. 이 둘이 결합한 말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③ O: ㉢의 '30년 동안'에서 '년'은 해를 세는 단위 명사이다. 단위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릴 때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30년'으로 쓸 수 있다. '동안'은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30년 동안'은 바른 띄어쓰기이며, 원칙대로 '30 년 동안'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④ X: ㉣의 '일 밖에'는 **'일밖에'**로 고친다. 여기서 '밖에'는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내며 뒤의 '없다'와 호응하는 보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일밖에 없다'로 쓴다.

NoteBase

문 14. 다음 <보기>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주체는 환자를 진찰한 **'우리'**이다. 보호자는 연락을 받는 대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이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앞뒤 문맥을 통해 누가 그 동작을 했는지 확인한다.

㉠: '속여넘기려고'의 주어는 **'환자가'**이다. 앞서 진술을 거부하던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속여넘기려 한다는 내용이다.

㉡: '그러는'은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자신의 머리가 이상해졌음을 확인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환자이므로, 생략된 주어는 '환자가'이다.

㉢: '연락을 취해 보니'의 주어는 **'우리가'**이다. 앞 문장의 '우리도'가 가리키는 진찰 담당자들이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두었다가 보호자에게 연락한 것이다. '보호자'는 연락의 대상이므로 이 동작의 주어가 아니다.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의 주어는 문장에 제시된 **'이 환자는'**이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소지품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환자이다.

㉠·㉡·㉣의 주어는 모두 환자를 가리키지만, ㉢의 주어는 환자를 진찰한 '우리'를 가리킨다.

NoteBase

문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구상의 '초토의 시'는 **1950년대 전쟁·전후시**에, 신경림의 '농무'는 **1970년대 참여시**의 흐름에 해당한다. 전쟁의 비극을 다룬 ㉢이 산업화 시대 농민의 현실을 다룬 ㉠보다 앞선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 → ㉢ → ㉣ → ㉠

㉡ 1920년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은 1925년에 결성되었고,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은 1926년에 간행되었다. **카프의 결성과 '님의 침묵'의 출간**이 함께 제시되므로 1920년대의 시단을 설명한 것이다.

㉢ 1930년대: 도시적 감수성과 세련된 표현 기교를 중시한 모더니즘 시가 전개된 시기이다. 김기림의 장시 '기상도'는 **1936년에 간행**되었으므로, 1920년대의 ㉡ 다음이자 한국전쟁을 다룬 ㉣ 이전에 놓인다.

㉣ 1950년대: 한국전쟁과 그 상처를 다룬 전쟁·전후시의 흐름이다. 구상의 연작시를 묶은 시집 '초토의 시'는 1956년에 간행되었으며, 전쟁이 남긴 비극적인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제시문의 **황폐화된 국토와 전쟁의 비극**이 이 시기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1970년대: 신경림의 '농무'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1970년대 참여시·민중시의 흐름에 속한다. 고은·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이 보여 준 현실 비판과 저항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 농민의 삶과 현실 비판**을 다루므로 1950년대 전쟁·전후시 이후에 놓인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② 굼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④ 끌끌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굼적대다'는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라는 뜻이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는 '금실거리다'의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닐대다'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벌레가 기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살갗의 감각**을 나타낸다.

② X: '굼적대다'는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선지의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는 **'금실거리다'**의 뜻이므로 단어와 뜻풀이가 잘못 연결되었다.

③ O: '꼬약대다'는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는 것을 뜻한다. **입에 넣는 양은 많지만 조금씩 계속 씹는 모습**을 나타낸다.

④ O: '끌끌대다'는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는 것을 뜻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혀를 차는 소리**로 드러내는 경우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① 토의 - 討義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擧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문의 '사고'는 대안을 검토하며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뜻하므로, '생각 사(思)'와 '생각할 고(考)'를 써서 '思考'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토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검토하고 의논하는 것이다. '의논할 의(議)'를 써서 **討議**로 적는다. 선지의 '義'는 '옳을 의'이므로 '議'로 고쳐야 한다.

② O: '사고'는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다. 지문의 '공동의 사고 과정'은 함께 생각하며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뜻한다. '생각 사(思)'와 '생각할 고(考)'를 쓰는 **思考**가 문맥에 맞는다.

③ X: '선택'은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이다. '가릴 선(選)'과 '가릴 택(擇)'을 써서 **選擇**으로 적는다. 선지의 '先'은 '먼저 선'이므로 '選'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준거'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등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다. 지문에서는 여러 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을 뜻하므로 **準據**로 적는다. 선지의 '擧'는 '들 거'이며, 여기에는 '근거 거(據)'를 써야 한다.

NoteBase

문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한여름'은 원래 없던 **ㄴ이 새로 끼어들어** [한녀름]으로 발음되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기존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대치'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국+만 → [궁만]: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이다. **ㄱ이 ㅇ으로 바뀔 뿐** 음소의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 대치에 해당한다.

② 물+난리 → [물랄리]: '난리'의 두 ㄴ이 인접한 ㄹ의 영향으로 각각 ㄹ로 바뀌는 유음화이다. **ㄴ이 ㄹ로 바뀌어** 음소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 대치에 해당한다.

③ 입+고 → [입꼬]: 받침 ㅂ 뒤에서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이다. **ㄲ도 하나의 음소**이므로 음소가 새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ㄱ이 다른 음소로 바뀐 ㉠ 대치에 해당한다.

④ 한+여름 → [한녀름]: 앞말 '한'의 받침 ㄴ은 그대로 있고, 뒤말 '여름'의 첫머리에 **없던 ㄴ이 추가**되어 [녀름]으로 발음된다. 음소의 수가 하나 늘어나는 ㄴ 첨가이므로 ㉢ 첨가에 해당한다.

①·②·③은 모두 ㉠ 대치인 데 비해 ④는 ㉢ 첨가이므로,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르다.

NoteBase

문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내부에 모두 '대립과 통일'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은 두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결론은 뒤 문장의 '지양'과 '합일'로도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인간의 활동 내부와 자연의 내부에 각각 '대립과 통일'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필연적 경쟁**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는 없다. 빈칸에는 두 영역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들을 단순한 대립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② O: 첫 문장은 인간사와 자연사의 차이를 제시하지만, '그런데' 이후에는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라는 말과 두 영역에 모두 존재하는 '대립과 통일'을 제시한다. 따라서 두 역사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경계**하는 문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는 앞의 공통점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며, 이 결론은 뒤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한 합일', 곧 대립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지향과도 연결된다.

③ X: 두 역사가 합일을 지향한다는 말은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일방적으로 흡수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문은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조건도 설명하지 않는다. 빈칸에는 역사의 기원을 단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사와 자연사를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관점을 경계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④ X: 지문에는 인간사와 자연사의 연구에 드는 노력을 비교할 근거가 없다. 앞 문장의 공통점에서 연구의 어려움으로 화제가 바뀌면 뒤 문장의 합일 지향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빈칸은 **연구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두 역사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같은 산도 몸의 자세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자 다르게 보인다. 이러한 경험 뒤에는 **익숙한 시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산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소유의 교훈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글에는 소유욕이나 집착을 버리는 경험이 없으며, 중심 사건은 **보는 자세를 바꾸자 산이 다르게 보인 경험**이다. 뒤에는 이 경험에서 얻은 인식의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빨래를 당일에 다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대목은 글쓴이의 급한 성미와 산을 바라보게 된 상황을 소개한다. 이후 글의 초점은 빨래에서 **산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으로 옮겨 간다. 따라서 성실한 삶을 권하는 내용보다 달라진 시각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어울린다.

③ X: 글쓴이는 누운 방향을 바꾸거나 가랑이 사이로 산을 바라보며 낯선 모습을 발견한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 안에서 시각을 바꾼 것**이며, 종교적 의지나 현실을 초월하려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어질 내용도 종교적 초월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④ O: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는 발견에 이어 가랑이 사이로 산을 바라보는 행동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보려는 시도이다. 산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같은 대상이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이 경험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NoteBase